광주 경제계, 제조업 살리기 총력…“고용·판로 확장”

광주경총, ‘고용이음’ 인력이탈 차단…최대 300만원 지원
상의, 조달시장 진입 뒷받침…시장 공략·매출 확대 기대

광주 경제계가 흔들리는 제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에 나선다.

고용 안정과 판로 확대를 겨냥한 지원 산업인데, 앵커기업 위기가 협력업체로 번지며 인력 유출과 매출 감소가 겹치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총 9억원 규모의 ‘고용이음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2026년 광주 버팀이음 프로젝트’ 핵심 과제로, 대량 실업 발생 이전 단계에서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고용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광주지역은 가전·고무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영 위기가 심화되면서 협력사 동반 휴업과 근로자 실질 소득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숙련 인력의 타 업종 이탈이 가속화되며 제조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경총은 기존 제도로 보완이 어려운 비임금 손실까지 지원하는 ‘핀셋형 대책’을 마련했다.

휴업·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인 광산구 소재 기업 근로자는 전 업종에 걸쳐 최대 6회(300만원), 그 외 지역은 가정용 기기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전·후방 연관 산업 근로자 대상 최대 3회(150만원)까지 분할 지급한다.

장기 휴업 이후 현장에 복귀하는 근로자들의 조직 몰입도를 높이고 무너진 팀워크를 재건하기 위한 ‘조직적응 지원’도 병행된다.

고용유지 조치를 마치고 정상화 됐거나 경영을 재개한 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사내 노사 화합 및 소통 프로그램 활동비를 실비 지원한다.

참여 인원 규모에 따라 10인 미만 기업은 최대 50만원, 100인 이상 기업은 최대 300만원 등 1회 실비 정산 방식으로 차등 지급된다.

양진석 회장은 “숙련기술 인력 이탈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며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해 지역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제조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에 나섰다. ‘2026년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직접생산증명서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광주 소재 제조기업으로, 총 6개사를 선착순 모집한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300만원 상당의 전문 컨설팅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약 225조원 규모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이 가운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액만 2024년 기준 약 14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역 중소기업은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광주상의는 맞춤형 컨설팅과 입찰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참여 기업들은 나라장터 입점을 통해 약 6억원 규모의 납품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고용 유지와 판로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광주 경제계의 이번 지원이 지역 제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은행, 구독서비스 특화 카드 출시

‘삼성 AI구독 장기할부’ 서비스… 월 최대 2만원 캐시백

광주은행이 커지는 구독서비스 시장을 겨냥해 특화카드를 선보였다.

광주은행은 삼성전자 AI 구독클럽 서비스 이용 고객 및 삼성스토어에서 장기할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인 ‘삼성 AI구독 장기할부 광주은행BC카드’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AI 구독클럽 또는 장기할부 이용 시 매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카드는 삼성스토어 매장 방문 시 고객 본인의 휴대폰에서 광주은행 모바일 웹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카드발급 등록이 완료된 경우 카드를 수령하기 전이라도 삼성스토어 매장에서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카드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삼성스토어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AI 구독클럽으로 구매하거나 24·36개월 장기할부로 구매할 경우 무이자 할부 혜택은 물론 매월 카드 전월실적에 따라 AI 구독 자동납부 또는 장기할부 이용 범위 내에서 기본 캐시백 금액에 6000원을 추가해 매월 최대 2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24·36개월 장기할부로 결제 시 삼성전자의 멤버십 정책에 따라 결제금액 구간별 삼성전자 포인트도 추가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광주은행 카드헬프센터(1577-3650)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해출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삼성전자의 AI기술 기반 제품에 대한 AI구독클럽 매출이 급격한 증가세에 있고, 장기할부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도 꾸준히 늘고 있어 고객의 결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제휴카드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비 지출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형 사회연대경제’ 청년일자리·돌봄사각 해소

시, 고용부 ‘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공모 선정
15억 투입…‘노동통합’·‘통합돌봄’ 중심 전략사업 추진

광주시가 사회연대경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의 단일 사회적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함께 맞춤형 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5억원(국비 10억원·시비 5억원) 규모로, ‘노동통합’과 ‘통합돌봄’을 중심으로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노동통합 분야에서는 취업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탐색 준비와 디지털 기반 사회연대경제 일 경험을 제공하고,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양성 및 현장 중심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

통합돌봄 분야는 5개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운영된다. 동구는 중장년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정의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북구는 독거노인의 생활 위험을 진단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구는 퇴원환자를 위한 원스톱 케어를, 서구는 고령 1인 가구 대상 주말 안부 확인과 방문 건강 서비스를 추진한다. 광산구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돌봄을 지원한다.

특히 광주시는 이날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출범식에서 대표 모델로 선정됐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자치구별 맞춤형 사업 설계,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코스닥, 1200선 돌파

‘닷컴 버블’ 이후 최고치

코스닥이 지난 24일 종가기준 1200선을 돌파하면서 ‘닷컴 버블’ 이후 25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29.53p(2.51%) 오른 1203.84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닷컴 버블 시기였던 지난 2000년 8월 4일 이후 약 2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수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직전 거래일인 지난 2월 27일 1192.78을 찍은 후 지난달 4일 978.44까지 밀리며 ‘천스닥’을 내줬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난 10일부터 9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지만, 코스피에 비해 상승세가 완만해 전날까지 1170선에 머물며 전쟁 전 수준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반도체 대형주가 주춤한 사이 코스닥에 상장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주와 바이오주 등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1200선을 뚫었다.

소부장주 중 SFA반도체(22.18%), 제주반도체(18.16%), 주성엔지니어링(6.63%), 이오테크닉스(4.44%) 등이 같이 올랐다.

바이오주도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최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삼천당제약(8.29%)이 7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고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알테오젠(3.22%), 에이비엘바이오(2.41%)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1671개 종목 중 67%에 해당하는 1127개 종목이 상승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321억원, 1876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반면 개인은 9015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수 상위종목은 SFA반도체, 제주반도체, 휴림로봇, 고영, 오가닉티코스메틱 등이었다.

한편, 코스피는 중동 긴장이 재고조된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에 전장보다 0.18p(0.00%) 내린 6475.63으로 6470대에서 약보합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9495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1832억원, 8054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14억원 ‘팔자’를 나타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여수수협은 최근 여수수협 본점에서 어업사업자와 지역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신보-여수수협 단독 특별출연 협약

지역수협 전국 최초 사례…총 75억 공급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여수수협은 최근 여수수협 본점에서 어업사업자와 지역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수협이 단독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이며, 여수국가산단 위기와 최근 이어지는 3고(물가, 환율, 금리)에 얼어붙은 여수지역 민생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협약은 여수수협의 특별출연금 5억원을 재원으로, 전남신보에서 15배 규모인 총 75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수협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어업사업자 및 일반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향후 보증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2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전남신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자금 활로를 모색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율 연 1% 이내 등 일반 상품 대비 심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한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여수수협이 전국 최초로 단독 출연에 직접 나선 것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념비적인 사례다”며 “소중한 출연금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회복에 쓰이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보증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지방재정회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국가철도공단,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내부통제·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학연금, 내부통제·반부패 협력 강화

지방재정공제회·국가철도공단·남동발전과 감사 업무 협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최근 지방재정회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국가철도공단,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감사 전문성 제고 및 내부통제·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협약식에는 각 기관 상임감사가 참석해 감사 분야 협력 확대와 실질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감사시스템, 감사기법 등 정보 공유 및 제공 △특화·공통 업무에 대한 감사인력 지원 △반부패 제도 및 업무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협약기관별 적용 및 활용 △청렴문화 확산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이다.

한민규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학연금은 내부통제 강화와 예방중심 감사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2025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최고등급(A)를 달성한 바 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추진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대상

국민연금공단은 치매 어르신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2일부터 계약에 따라 공단에 재산을 위탁하면 맡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본인의 요구를 반영한 지출계획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용대상은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 미만의 치매환자 중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이 이용을 희망하면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용자가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예금 등 현금성 자산에 한정되며, 부동산의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화하면 위탁이 가능하다.

공단은 상담이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지자체 등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